

26주 세계 1위로 미국 최고가 된 넬리 코르다

넬리 코르다가 미국 여자 골프 선수 중 가장 오래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선수가 됐다. 26주 동안 세계 1위에 오른 코르다의 기록에 미국 골프계는 '새 역사를 썼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자국에서 열리는 LPGA 투어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세에 밀려 있던 미국 골프계로서는 코르다의 등장이 흥분할 만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코르다는 이날 발표된 2022년 첫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평점 9.82를 기록, 고진영(9.75)을 따돌리고 1위를 유지했다.

26주 세계 1위는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내세울 만한 기록은 아니다. 2006년 처음 랭킹제를 도입한 이후 총 15명의 세계 1위 가운데 100주 이상 정상을 지킨 선수만 5명이나 된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LPGA 투어에서 72승을 거둔 '골프여제'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선수 생활 끝 무렵에 도입된 세계 랭킹에서 초대 세계 1위로 60주 동안 정상을 지킨 다음 로레나 오초아(158주, 멕시코), 청 앤디(109주, 대만) 박인비와 고진영(이상 106주, 한국)



▲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넬리 코르다. 사진=게티이미지

리디아고(104주, 뉴질랜드) 등이 100주 이상 정상을 지켰다.

한국은 신지애가 2010년 5월 세계 1위에 오른 이후 가장 많은 5명의 세계 1위를 배출했다. 박인비, 유소연(19주), 박성현(20주), 고진영까지 모두 더하면 276주 동안 여자 골프 세계 정상을 지배했다.

미국은 3명의 세계 1위를 배출했다. 크리스티 커, 루이스, 코르다가 그들이다.

한국, 미국 외에 복수의 세계 1위를 배출한 국가는 없다.

MLB 내셔널리그도 지명 타자 도입할 듯



▲ LA 다저스 경기의 한 장면. 사진=shutterstock

아메리칸리그와 더불어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 리그(MLB) 양대 리그를 형성하는 내셔널리그가 올해 지명 타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BS 스포츠는 전날 MLB 구단과 선수 노조가 새로 합의하는 노사 협약에 보편적인 지명 타자 제도 시행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메리칸리그뿐만 아니라 내셔널리그에서도 투수 대신 지명 타자가 타석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아메리칸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를 1973년 도입했다.

내셔널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없어 투수가 타격도 한다. 인터리그와 월드 시리즈에서 양대 리그 팀이 격돌할 때 아메리칸리그 홈구장에서 경기가 벌어지면, 두 팀은 지명 타자를 활용한다. 내셔널리그 홈구장이면 투수를 타석에 내보낸다.

내셔널리그 LA 다저스에서 주로 뛴 '코리안 특급' 박찬호(48)는 빅리그에서 통산 홈런 3개를 쳤다. '베이브 뷔스' 란 애칭을 얻기도 한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다저스 시절 홈런 1개를 날렸다.

지명 타자 제도 도입 후 리그 색깔은 갈렸다. 라인업을 전원 타자로 꾸린 아메리칸리그는 공격력이 돋보이는 야구를 펼쳤다. 투수가 타석에 등장하는 내셔널리그는 아메리칸리그보다는 아기자기한 맛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주로 들었다.

현재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마련하지 못해 MLB는 지난해 12월 2일 아래 직장폐쇄 상태이지만, MLB 구단과 선수 노조가 이달 중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면 내셔널리그 지명 타자 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합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웨스트브룩, '407경기 연속 실책' 기록 끝냈다

웨스트브룩(LA레이커스)이 마침내 407경기 연속 실책(턴오버) 기록을 끊었다. 날수로 따지면 무려 2,122 일 만이다.

5일 농구전문매체 '루키'(rookie.co.kr)에 따르면 웨스트브룩은 전날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시즌 새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출전했다. 이날 경기는 레이커스 칭스에 122~114로 승리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승리보다 웨스트브룩이 경기 중 실책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날 현재 통산 평균 턴오버 4.2개로 이 부문 역대 1위를 달리고 있던 웨스트브룩은 이번 시즌에도 경기당 4.8개의 턴오버를 저지르며 제임스 하든(브루클린 네츠)에 이어 2위에 올라있었다. 직전 경기였던 3일 미네소타전에선 턴오버를 무려 9개나 범하기도 했다. 웨

스트브룩이 마지막으로 턴오버 없이 경기를 끝마친 것은 2016년 3월 15일 포틀랜드전 이후 이날 경기가 처음이다.

웨스트브룩이 집중력을 끌어올린 레이커스는 이날 팀 전체 턴오버를 5개로 줄였다. 시즌 평균 기록이 15.1개란 점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웨스트브룩은 "매일 우리가 5개의 턴오버로 경기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오늘 경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팀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랭크 보겔 레이커스 감독은 "웨스트브룩은 늘 신경쓰고 올바른 플레이를 하려한다"고 칭찬했다.

웨스트브룩이 앞으로도 무실책 경기를 펼쳐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신속한 응자 필요하신 분! 응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응자 가능

- Low/ No Document Program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Refinance



Sean Kim
Senior Loan Agen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